

- 주요 뉴스: 미국의 8월 고용 및 제조업 지표, 예상보다 양호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부각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
 - 독일 총리, 러시아산 가스 없이도 월동 가능. 독일 전력 선물 가격은 큰 폭 하락
 -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확장의 기준인 50 하회. 수요 둔화 등이 원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우려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 등이 영향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세[+0.9%], 금리 상승[+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저가매수 유입으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유로 Stoxx600지수는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1.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경제지표 등으로 20년래 최고치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1.1%, 0.9%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물가 지속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ECB 금리인상 가속화 예상 등으로 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56.2원, +1.3원) 0.1% 상승, 한국 CDS 상승

9/1일 8/31일 전일대비					9/1일 8/3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66.9	3,955.0	0.30%	국채 금리 10y	미국	3.25%	3.19%	6bp
	유럽	407.66	415.12	-1.80%		독일	1.56%	1.54%	2bp
	중국	3,185.0	3,202.1	-0.54%	CDS 5y	한국	33bp	32bp	1bp
	일본	27,661	28,092	-1.53%		중국	77bp	74bp	3bp
	한국	2,415.6	2,472.1	-2.28%	위험 지표	EMBI+	-	433	-
환율	달러지수	109.66	108.70	0.88%		VIX	25.56	25.87	-1.20%
	유로화	0.9946	1.0054	-1.07%		WTI유	86.61	89.55	-3.28%
	엔화	140.21	138.96	-0.89%	원자재	구리	341.5	351.9	-2.96%
	위안화	6.9070	6.8904	-0.24%		금	1,697.5	1,711.0	-0.79%
	원화	1,354.9	1,337.6	-1.2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의 8월 고용 및 제조업 지표, 예상보다 양호.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부각

- 9/1일 발표된 8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3.2만을 나타내 2개월래 최저. 또한 예상치(24.8만건) 대비 적어 전반적인 경기둔화 여건에서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사실 확인. 다만 주택 및 기술 부문 기업들은 수요의 둔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을 축소하는 모습
- 8월 ISM 제조업 PMI는 52.8을 기록하여 예상치(52.0) 상회. 이번 결과는 제조업 활동의 회복력이 강하다는 신호 발신. 세부항목 기준으로 고용은 양호했으며, 운송시간이 단축되는 등 공급망 개선 징후도 존재
-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지표 발표가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 Nationwide의 Scott Murray는 경기침체가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CIBC Private Wealth의 David Donabedian은 그 동안 연준이 통화긴축을 종료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과도하게 높았다고 지적. 한편 9월 FOMC에서 0.75%p 인상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 상승(3.25%, 6bp)
- 한편 이날 발표된 2/4분기 노동생산성(수정치)은 연율 환산 기준 전기비 4.1% 하락하여 속보치(4.6%) 대비 다소 개선. 이는 견조한 노동수요에 의한 임금상승에 기인. 이에 전문가들은 생산성이 악화될수록 기업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고용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

- 보스틱 총재는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목표치(2%)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시행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 향후 경기연착륙이 도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부연
- 한편 델러스 연은의 로건 총재는 연준의 최우선 관제는 물가안정이라고 발언.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매우 중요하다고 첨언

■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경기 둔화 조치를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

- 센테노 총재는 최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향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경기 둔화를 유도하는 노력은 장기적 시각에서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

■ 독일 총리, 러시아산 가스 없이도 월동 가능. 독일 전력 선물 가격은 큰 폭 하락

- 솔츠 총리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해도 위기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 또한 가스 저장 능력을 확대하여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로부터 가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언급. 한편 이날 독일 전력 선물 가격의 1MWh당 가격은 당국의 시장개입 기대감으로 8/26일(652유로) 대비 25% 가량 하락한 490유로로 마감

■ 이탈리아 정부, 신규 인플레이션 억제 대책을 준비. 기업들의 관련 우려 증폭을 반영

- 이번 대책은 가계와 기업을 에너지 가격 폭등 등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규모는 수십억 유로에 이를 전망. 최근 기업들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 제공을 촉구하면서, 지금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 피력

■ 영란은행 정책위원, 고물가는 생산성 향상을 저해

- 캐서린 만 위원은 고물가 우려가 증폭되면서 기업들이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제품의 단기적 가격 전략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

■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확장의 기준인 50 하회. 수요 둔화 등이 원인

- 해당 지수는 49.5를 기록하여 전월(50.4) 대비 하락하며 3개월 만에 50 이하를 기록. 이번 결과는 코로나 19 재확산, 폭염 등에 따른 전력 부족, 수요 둔화 등이 배경. 세부항목 기준으로 투입비용이 하락한 것은 기업이익 개선에 긍정적. 다만 신규수주, 고용, 수출 감소 등은 향후 소비 부진 등을 초래할 소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건설지출(전월비): -0.4%, 6월(-0.5%), 예상치(-0.1%)

■ 주요 경제 이벤트(9/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고용보고서, 7월 공장수주, 유로존 7월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천연가스 재고 부족,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 - WSI

(America Could Face Its Own Gas Crisis, or Worsen Europe's)

- 최근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11.3% 적은 수준. 이에 지난주 천연가스 가격은 '21년 대비 생산량이 43% 적었던 '08년과 유사한 1MMBtu당 10달러까지 상승
- 기후 요인에 따른 재고 부족 심화, 러시아의 정치적 대응 등은 향후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을 높일 전망. 또한 이는 자원 민족주의를 대두시켜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인 미국의 수출량 감소를 초래하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증폭시킬 우려

■ 영국 파운드화, 저성장·재정적자 확대로 달러화와의 패리티에 직면할 소지 - 블룸버그

(Once Unthinkable, Parity for Sterling Is on the Horizon)

- 최근 파운드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달러화와의 패리티(등가) 가능성이 제기. 파운드화 약세의 가속화는 영국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 뿐 아니라 저성장과 재정적자 확대라는 자국 고유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데 기인
- 영국은 장기간 대규모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요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관련 우려가 확산. 아울러 대내외 여건 악화로 수출과 국내수요가 부진하여 향후 경제성장도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

■ 미국 주택시장,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 - Financial Times

(Why housing is the key to the next Fed pivot)

■ 미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23년 자체 수퍼백신 개발까지 지속 예상 - Financial Times

(China waits on 'miracle' to end zero-Covid policy)

■ 인도, 쌀 수출 금지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급 부족 해소가 효과적 - 블룸버그

(India May Limit Rice Exports. Bad Idea.)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